

신구약에 나타난 설교 : 설교사적 고찰

이 용 호

· 서울 영천교회 담임 목사

· 서울 고려신대원 강사

I. 서론

설교학자 후등광삼은 “일본의 많은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설교하지 않고 신학서에서 설교하고 있다.”¹⁾는 지적을 했다. 설교자가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의 모습과 방불한 것이다(삼상 7:39). 설교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엡 6:17)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 성경과 설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이런 점에서 설교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다루면서 성경에 나타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친근히 하고 성경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설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에서 성취된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다.²⁾ 본 논문에서는 오경과 선지자들의 설교, 포로 시대에서 그리스도까지의 설교사를 개관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II. 구약에 나타난 설교

1. 오경의 설교

(1) 신명기의 설교사적 위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오면서 그들을 다스리

1) 후등광삼, 설교학, 광철영 역(서울: 제일출판사, 1969), p. 23.

2) Ibid., p. 24.

고 가르치던 기초는 시내산 율법이다. 그 율법을 설교적인 형태로 풀어서 권고하는 말씀이 곧 신명기의 설교이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신 1:5)로 시작하여 신명기 33장에 이르는 축복의 기도까지 장엄한 설교로서 교훈을 마치고 있다. 모세가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명기라는 책이 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종교 개혁의 거센 기운이 온 유대를 감돌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통치 18년 되던 때에 발견되었다.³⁾ 이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발견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된 사건이요 말씀 운동의 대부흥이었다.⁴⁾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설교사적으로 볼 때 구약 설교의 출발점이요 수많은 선지자들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과 예언”을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인용하며 설교하셨다.⁵⁾

신명기는 구약 설교의 원형 중 하나이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구약이 많이 인용되었으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설교의 시초는 신명기요 설교자는 모세라고 추론한다. 사실 모세의 신명기는 후대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중요한 설교였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에서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모세의 말씀을 읽고 강독함으로써 온 회중이 눈물을 흘리며 참회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함으로써 듣게 하는 설교가 대표적인 예이다.⁶⁾

(2) 신명기 설교의 특색

① 강해 설교적인 메시지이다

신명기 첫 시작의 1:1의 말씀을 보면,

3) 대하 34:15.

4) 안영복, 구약 역사(부산:양문출판사, 1982) p. 266.

5) 마 7:12.

6) 정규남, “구약의 설교 활용” 성서와 현대 목회(서울:연신원, 1983). p. 362.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본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로 되어 있다.

모세의 이러한 선포는 율법의 낭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석해 주는 강해 설교적인 성경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10,11에,

“너는 육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않고 묵혀 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고 했다. 출애굽에서는 그 면제법에 대하여 단순히 그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기 15:1 이하에는 이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말하고 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1절은 이 법을 총괄적으로 서술하며 2~3절은 이 면제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4~11절은 이 법에 대한 모세 자신의 설명과 이 율법 제정의 동기와 그 혜택을 입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동정적으로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율법 정신을 이해하도록 노력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이는 가난을 극복하는 데 율법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 규범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오늘”을 강조하는 메시지이다

또 한 가지 신명기 설교의 특색은 “오늘”을 강조하는 시간성의 현재 개념이 강하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5:1),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5:2),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8:18),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나니”(11:26),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26:17) 등.

이 ‘오늘’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일깨우는 강렬한 단어이다. 신명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북소리처럼 들려 청중들로 하여금 과거 은총에 살지 않고 오늘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회복하도록 깨우쳐 주는 말씀이다. 즉, ‘오늘’은 선 자리와 가는 방향과

7) 김정준, 구약신학의 이해(서울: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3), p. 237.

바라보는 목표를 바로 붙잡게 하는 강한 메시지이다.⁸⁾

③ 교육을 강조하는 메시지이다

모세는 설교자요 교육자이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일명 ‘쉐마’는 민족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또 가르칠 사명도 받고 있다. 모세는 교육적 사명을 강조하는 큰 메시지를 선포했다.⁹⁾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강조한 민족 교육은 철저한 선민 의식의 인식과 여호와를 향한 복종에 있다. 그리고 교육의 범위는 가정이나 직장, 보행이나 잠자리에서까지도 시행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교육은 명령형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쉐마가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기록할지니라”는 명령으로 끝맺음하고 있다.

2. 선지서의 설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예언과 그 성취, 약속과 그 완성의 의미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설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 선지자들의 설교적 기능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Nabi)’라고 부른다. 나비는 ‘나바(Naba)’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은 “메시지를 운반하는 자”라는 뜻이다.

8) 이용호, 평신도 이렇게 키운다(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6), p. 168.

9) 신 6:4~9

원래 기독교의 설교는 구전이나 웅변가의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흐름을 따라 전해진 것이다.

“선지자는 그리스의 웅변과 같이 단순한 감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입김 — 영감이란 곧 입김이다 — 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다. 설교란 실로 그러한 것이다.”¹⁰⁾

선지자들의 설교가 신약성경에서와 같이 분명치는 않다 하더라도 구약 그 자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를 선언하고,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거기에 거역하는 자를 향한 심판을 선고하고, 회개를 권하며, 속죄의 의식이 행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 즉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의 속죄를 전하고 있다. 에릭 사우어(Erich Sauer)는 대속 사상이 이미 구약에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며 죄와 속죄 제물(chataab)에 대한 동일어를 사용한 적도 허다하다¹¹⁾고 했다. 민 32:23과 사 5:18에서는 죄의 형벌을 의미하고 레 6:18, 겔 40:39에서는 속죄 제물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다(고후 5:12).¹²⁾ 선지자들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안에 울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과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는 능력이다.”¹³⁾ 그들이 들은 것은 그들만의 들음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이요 역사 안에서 펼쳐 가야 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 주어야 할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① 보는 기능, ② 듣는 기능, 그리고 이 외에 ③ 역사를 해석하는 기능도 담당했다. 선지자들은 타인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심상히 보아 넘기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2) 선지자와 말씀 사역

광의적으로는 구약성경 그 자체가 케리그마이다. 그러나 케리그마는 직접 말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선지자라는 이 속죄의 일을 말로써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파하며, 그리고 국민의 죄를 가르치고 회

10) 후등광삼, *op. cit.*, p. 26.

11) Erich Sauer, *십자가의 승리*, 권혁봉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p. 56.

12) *Ibid.*

13)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서울: 문장, 1984), p. 38.

개를 촉구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권하는 일을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하는 직무라면 선지자들은 주로 사람들을 상대한다.¹⁴⁾ 제사장은 기도하는 직무라면 선지자는 말로써 사역하는 직무이다. 그러나 철저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아주 독특한 것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위였다.¹⁵⁾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9)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렘 5:14)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렘 7:1).

이상의 표현은 선지서에 아주 많이 나온다. 선지자들은 결코 자기의 말로 설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만 했다. 또한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만 한다.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렘 11:6)고 했다. 사실 선지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기에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있는 메시지도 수없이 거부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렘 17:23)고 했다.

선지자들의 선교 사역에는 단순히 듣지 아니한 정도만 아니라 극한 고난도 따랐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렘 20:8).

“나는 감금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렘 36:4) 이 표현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못하고 간혀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예레미야는 말씀의 선지자요 말씀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라고 외쳤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에는 짐이 따른다.¹⁶⁾ 그 짐은 모든 설교자들이 기꺼

14) 후등광삼, *op. cit.*, p. 27.

15) J. Bright, 구약성경의 권위, 이군호, 임태수 공역(서울: 컨콜디아사, 1981), p. 245.

16) 안영복, 구약 역사(부산: 양문출판사, 1982), p. 261.

이 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다.

(3) 최고의 메시지

선지자의 탁월한 케리그마는 수난의 메시아를 선포한 이사야의 메시지이다.¹⁷⁾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의 종은 메시아로 나타난다.¹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초기의 선지자들은 국가의 위기나 국민적인 배신과 타락을 힐책하였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형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선포했다.¹⁹⁾ 신약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

베드로가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고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활동은 사실상 메시아의 구원의 증거였던 것이다.

3. 포로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많은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에 그 포로의 고통으로 인하여 민족적인 신앙이 순화된 것도 있으며,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특징은 회당 중심으로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이다.

(1) 포로 생활과 설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이었다. 그때의 바벨론은 무역, 생산, 상업 등의 중심지였고 이스라엘이 분산되어 살기도 했지만 각지에서 농업과 상공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살았으며, 종교의

17) H.C. Mears, *What the Bible is all about*, (Ventura: Regal Books, 1981), P. 212.

18) E.J. Young, *구약총론, 홍반식·오병세 공역*(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71), p. 243.

19) *Ibid.*

자유도 허용되었다. 이스라엘은 전원을 만들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얻으며, 너희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아도 그 시대의 환경을 잘 말해 준다.²⁰⁾

그런가 하면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그리워 하다가 눈물을 뿌린 생활도 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 137:1-5). 저들에게는 찬송도 메마를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박한 생활로 돌아갔다.

특히 포로 시대에는 포로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고, 장차 용서를 입어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외쳤다.²¹⁾ 그와 동시에 회개를 촉구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겔 18:30~31)라고 했다. 에스겔은 회복을 설교했다.²²⁾

(2) 회당 선교의 도입

포로기의 선지자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대표적이고, 예레미야도 초기에는 봉사했다.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대표적이다. 포로기에는 회당 예배에 적응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설교도 회당에서 들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다(yeda)와 카할(kahal)이라는 두 집회를 가졌고 후에 70인역에서 예다는 시나고구(synagogue)로 번역되고 카할은 에클레시아(ecclesia)로 번역되었다.

“시나고구”란 헬라어 ‘순(συν)과 ‘고게이(ἑνωμένη)’ 즉 ‘함께’ ‘모인다’에서 나왔다.²³⁾

포로 중에 이스라엘은 회당이 생활 중심지였고, 위로의 장소이며, 예배의 처소였다.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와 회생을 드리게 되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유대와 갈릴리에 회당을 세워 어린이 중

20) 렘 29:5~9.

21) H.C. Mears, *op. cit.*, p. 254.

22) E. J. Yong, *op. cit.*, p. 263.

23) J.H. Thay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Delaware: The N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p. 600.

교 교육을 맡게 하고 안식일에는 예배, 오후에는 율법을 교육받는 장소로 삼았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에델샤임(A. Edersheim)은 예루살렘 같은 곳은 480 군데의 회당이 있었고, 고을이나 마을에도 두 개 정도는 다 있었다고 했다.²⁴⁾

기독교의 설교와 회당 예배와는 구약 예언과 기독교 설교의 관계보다 더 분명하지만 깊이는 덜한 편이다. 회당 예배의 의식문, 기도, 축도 — 예를 들면 쉘마(shemah), 쉘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 그리고 케두샤(Kedusha) — 시가 및 찬양 등이다. 히브리어가 사어(死語)가 되자 해석이 보충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보통은 비공식적 강의 형태를 띠었으니 회당 설교는 이와 같이 하여 발생하였다.²⁵⁾ 회당 설교에는 예배 의식적 요소와 주석적 요소, 그리고 예언적 요소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는 예수님의 설교에도 잘 나타나 있는 요소들이다.²⁶⁾

그러나 중간 시대의 회당에서의 설교는 선지자들의 설교보다는 점차 신선미를 잃어 갔다. 이사야의 메시아 소망이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권면이나,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나, 아모스의 공의와 에스겔, 다니엘의 영적인 메시지는 사라지고 탈무드(Talmud)나 미슈나(Mishunah) 등 교훈집이나 구전으로 변하고 말았다.²⁷⁾

Ⅲ. 신약에 나타난 설교

앞 부분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설교를 고찰했다. 신명기 설교와 선지자들의 설교, 포로기와 그 이후의 시기에 있었던 설교 형태와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다루어 보았다. 신약성경에는 분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 중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있고 그 외에도 스테반의 설교도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인물별로 설교자의 모습과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 보겠다.

24) 후등광삼, *op. cit.*, pp. 30,31.

25) Y. Brillioth, 설교사, 홍정수 역(서울: 신망애출판사, 1987, p. 12.

26) *Ibid.*, p. 16.

27) 후등광삼, *op. cit.*, p. 31.

1.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죄 사함에 대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사자(herald)가 나타났다.²⁸⁾ 구약 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자취를 감춘지 긴 역사 동안에 돌연히 역사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설교자가 나타났다. 그가 세례 요한이다. 진정한 예언이 세례 요한에 의하여 다시 나타났다. 약 400여 년의 중간 시대를 살아 오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과 탈무드나 전승에 의한 각종 교훈과 구전들이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처하게 했다.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그의 설교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그것은 율법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랍비적인 양식이 아니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²⁹⁾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호한 표현이기에 동족의 연민이나 정신의 태도가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는 임박한 진노를 외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을 역설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는 것이 표현되지만 그 메시지의 중심은 내 뒤에 오시는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³⁰⁾

(2) 신랑 친구와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세례 요한)를 그리스도로 추앙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엄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설교자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 주는 모범 설교자상이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28) E. Sauer, *op. cit.*, p. 29.

29) D.W. C. Ford, *The Ministry of the Word*(Grand Rapids: Eerdmans, 1980), p. 43.

30) 마 3:7~12.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요 3:28). 그리고 “광야의 소리”(마 3:3)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요 3:29)고 했다. 즉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역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앞세웠고 그를 높였다.

“세례 요한은 구주의 소개자로서는 충분했다. 그러나 복음의 설교자로서는 불충분하였다.³¹⁾ 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이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보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자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는 설교자이면서 세례자(baptlser)이다. 그의 세례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세례 의식으로 구체화시켰다.³²⁾ 그는 오직 광야에서 하나의 소리로 나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외친 설교자였다.

“소리(voice)는 말(word)을 필요로 하나 말은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한은 예수가 필요하나 예수는 요한이 없어도 된다”³³⁾ 세례 요한은 메시아 때문에 이 땅에 필요했던 소리였다.

2. 예수의 설교

사실 진정한 설교의 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스스로 그 복음을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롬 1:4) 그 분 자신이 복음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설교하셨다. 가장 진지한 설교자는 바로 자신을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직능을 수행하셨다. 이 세 직능은 주님의 설교에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설교학자 후등광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성격을 세 가지로 잘 정리했다.³⁴⁾

31) 후등광삼, *op. cit.*, p. 34.

32)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서울:문장사, 1984), p. 50.

33) E. Sauer, *op. cit.*, p. 30.

34) 후등광삼, *op. cit.*, pp. 35~38.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했다. 사실 그 권위는 왕적 권위였다. 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³⁵⁾ 주님의 설교는 메시아의 소개가 아니며 오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선언하는 메시지였다. 주님은 먼저 구약성경이 자신의 증거임을 주장했다(요 5:39). 그것이 구속의 증명임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증명하셨다(눅 4:16-22).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율법의 진의를 직접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설교하셨다.

산상 보훈에서 주님은 구약성경을 존중하셨고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성케 하러 왔다고 증언하셨다. 군중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마 13:54). 왜냐하면 주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설교였다고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앞에서는 회개함이 없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와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셨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어떤 이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가 아니냐고 했다. 그의 죄책은 날카로웠다.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는 질책은 무서운 태도로 선포한 메시지이다.

주는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나 죄 있는 그대로는 사랑하진 않으셨다.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으며 회개한 죄인을 기꺼이 받아 주셨다. 주님의 설교는 죄에 대한 단호한 회개의 메시지였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하여 설교하셨다고 했다. 그가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권면함과 동시에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즉 “그의 모든 설교는 속죄의 설교였고 모든 메시지는 속죄에 관련되었고 십자가에 관련되었다.”³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healing ministry)은 매우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다. 그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적의 사용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목표를 두었다. 육의 질병 치료가 결코 이적이 목적은 아니었다.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35) E. Sauer, *op. cit.*, p. 40.

36) *Ibid.*, p. 41.

살리신 주님은 그 이적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 11:42)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특색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선지자나 율법사들의 설교와 다른 점은 오실 자(the coming One)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데 있다. “때가 찾고 하나님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했다.³⁷⁾ 그는 오실 자가 아니라 이미 오신 자요 완성자이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가 중심 사상이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고 설교하셨으나 하나님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시지는 않았다. 그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아버지이시다. 예수의 메시지에 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믿는 자는 그의 자녀이므로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아버지의 뜻이 곧 세계의 구출이다.³⁸⁾ 사도 요한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요 6:40)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나라의 실체이다. 그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개념이다. 이는 회개와 믿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실재이다.³⁹⁾

3.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본받을 것이다. 그들의 설교는 구약성경의 예언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입증하고 회개함으로써 사죄를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형식이나 여기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와 스테반과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간략히 고찰코자 한다.

37) D.W.C. Ford, *op. cit.*, p. 46.

38) E. Sauer, *op. cit.*, p. 44.

39) 유부웅, *op. cit.*, p. 54.

(1) 베드로

베드로의 대표적인 설교는 사도행전 2:14~36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설교에서 주목되는 것은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도행전 2장의 설교 중 거의 반 정도가 구약의 인용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도 다윗의 시편에서 증명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의 선언이다.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이 바르게 달성되었다. 그것은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정한 동력이 되었고, 교회를 창설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역사적인 교회의 탄생은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하는 사도들의 설교에 힘입었던 것이다.

(2) 스테반의 설교

스테반의 대표적인 설교는 사도행전 7:1~53에 기록되어 있다. 그 요지는 단순히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그의 설교는 요즈음 설교학에서 논하는 이야기식 설교 가운데 그 효시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의 흔적은 강한 설교이다. 스테반은 역대로 신실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불신의 죄를 통렬히 논박했다. 무리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쳤다. 설교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 베드로의 설교에 가슴을 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스테반의 설교에는 돌을 들어 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귀를 막은 청중들은 어떤 메시지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던 실례이다.

(3) 바 울

바울의 설교로는 사도행전 17:22~31에 나타난 설교를 예로 들겠다. 물론 사도행전 20:18~35의 설교도 훌륭한 목회적 설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울의 아텐의 아데오바고 설교를 다루었다.

아데오바고는 아텐의 뒷산을 갈라서 만든 자연 강연회장이다. 이곳에서의 강연은 그리스 철학계의 등용문이 되기도 했다. 바울은 스토의 철학의 본산지인 다소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그가 철학의 한 대목을 말할 유혹도 받았겠지만 그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다.

서론에서 아텐 사람들의 두터운 종교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석의 비문을 소개하면서 본론으로 진입하는 바울의 설교는 그 전달 방법에서도 탁월한 솜씨였다. 그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다. 전도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이방 세계에서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말해 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다. 청중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편재와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 바울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즉 왕이나 재판관 앞에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설교한 용감한 설교자상도 남겨 주었다(행 24:23, 26:24).

그러나 바울이 서신에서 남겨 준 메시지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 164 회나 나타났는데 사우어는 서신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⁴⁰⁾

로마서/ 그리스도 안에 칭의
 고린도서/ 그리스도 안에 성결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 기쁨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
 데살로니가서/ 그리스도 안에 영화

40) E. Sauer, *op. cit.*, p. 69.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도였고, 능력있는 설교자였다.

IV. 결 론

성경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설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요 선포요 적용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중심 주제를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족장들이나 모세,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신약에 가서 그 주제가 분명해졌고 특히 사도들의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행 3:14)로 고백하고 있다. 또 베드로의 설교 주제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행 2:36),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행 18:5, 20:31), 그리고 아볼로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었던 유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경으로써 ... 증거"하였다는 데 그 권위와 효력도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설교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